

도시 중산층 아파트 가구의 생활양식과 실내 의장 태도 유형 연구

A Study on the Life Style and the Pattern of Home Furnishing Attitudes of Middle Class Apartment Residents

신 영 숙*
Shin, Young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the pattern of general life style of the middle class apartment residents. 2) to examine the types of the home furnishing attitudes of those. 3) to find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 style and the home furnishing attitude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he respondents were 227 homemakers of the middle class apartment residents, selected through stratified random sampling technique. Data were coded and analyzed using SPSS computer packages. The statistics used were frequency, percentag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F-test, X^2 -test, factor and cluster analysis.

6 patterns of life style and 6 types of the home furnishing attitudes were identifi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ife style and the home furnishing attitudes were interpreted by 25%.

I. 서 론

인간의 다양한 주거 형태 중 집합주택은 사회경제 체제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도시주거의 대표적 형태가 되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히 팽창하는 주택난의 해결책으로 아파트 주거형태가 큰 인기를 얻고있다. '90년도 인구, 주택센서

스에 의하면 '85년도 대비 단독주택의 비율은 3.6% 증가한 반면 연립주택은 42.6%, 아파트는 103.6%가 증가하여¹⁾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의 비율은 77.3%에서 66.3%로 낮아진 반면 아파트의 비중은 13.6%에서 22.6%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주택의 양적 부족에 대한 해

* 정희원, 건국대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박

1) "'90년 인구 주택 센서스 표본 분석", 동아일보 1991. 8월 6일.

결책은 될지언정 물개성과 획일화된 평면으로 거주자 개개인의 생활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거주자들에 의한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 가변형 또는 주문식 주택설계 공법의 활용, 또는 외관에서부터 오는 물개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동별(棟別)로 도장(塗匠)을 달리 하거나 동(棟)의 배치형태 및 발코니 형태의 다양화를 기하는 등 부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규격화된 주거공간은 아직도 각 거주인들에게 자신의 집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게 하기에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러한 공간의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거주자들은 주거내부 공간에 자신들의 삶의 자취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은 그 거주자들의 자아의 상징으로서 주택의 형태, 규모, 실내의장등을 통해 그 가족들의 생활양식을 대변해주며 반대로 가족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휴식과 안락함을 주는 주택이라면 당연히 그 소유자들의 개성을 나타내주는 주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일반 거주자들도 쾌적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가구나 기구 및 실내 악세사리등을 통하여 보다 더 아름다운 집을 원하며,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이나 기호를 나타내고 싶어하여 주택내에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를 원하고 있다.

최근 기본생활 여건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가며 특히 주택의 경우, 내부 의장에 대한 미약적 관심의 증대로 일면 외국제품의 범람과 실내의장을 다룬 각종 잡지의 홍수속에서 지나치게 장식적, 소비적 측면이 강조되는 등 일반인들에게 자칫 실내의장이란 많은 비용이 들어야하는 것으로 오도(誤導)될 여지도 있다.

바람직한 디자인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표현하는 수단도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 수단도 된다. Joseph Esherich는 새로운 미학에 대해 정의하기를 아름다움이란 문제의 을

바른 해결에 대한 부산물로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먼저 아름다움만 생각하면 목적에 맞는 디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건물에 사는 사람이나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 건물 자체를 생각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좋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자들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여러 생활용구들도 단순한 기능 이외에 여러 미적인 요소들이 첨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실내의장에 대한 욕구는 일차적인 의생활 및 식생활등의 기본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자연 발생적으로 추구되는 과정이므로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오랜 조선시대의 봉건생활 이후 많은 전란과 파도기를 거쳐 이제야 어느정도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중산층의 층이 두꺼워지고 안정되어 가는 이때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실내환경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중산층 아파트 거주자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진정한 자신의 표현방법은 어떠한가에 연구문제를 갖고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중산층은 그들 고유의 가치기준에 따라 생활양식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으며 실내의장에 관한 그들의 가치 기준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과연 중산층의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는 유형별 분류가 가능할 것인가? 또한 생활양식과 실내의장 태도는 상호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후속연구에서는 주거내에서 가족들이 개성을 나타내는 방법은 어떠한지 거실의 의장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산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실제 생활양식 유형과 실내의장 태도의 유형을 파악하여 그들의 생활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산층 거주자들의 생활에 합당한 주공간 창조 및 다양화되어가는 거주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한 실내의장용품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규정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산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일반적 생활양식과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중산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양식 유형을 규명한다.
- 2) 중산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 유형을 규명한다.
- 3) 생활양식 유형과 실내의장 태도 유형과의 상관성을 밝힌다.

2.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생활양식 유형 :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의식, 의견, 흥미, 관심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 표출되는 행동과의 통합된 체계이며 개인의 활동, 흥미, 의견등에 의해 구체화 되어지는 생활방법의 차이를 의미한다.
- 2) 실내의장의 태도 : 실내의장에 관한 가치관, 관심도와 그에 따른 기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실내의장상의 방법의 차이를 의미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 1) 현재 전국에 분양되는 다양한 크기의 아파트 중에서 서민층의 주거 규모로 규정되는 25평 이하와 부유층의 주거규모로 규정되는 60평 이상은 제외하고 조사대상 중산층의 주거규모는 25평 이상 60평 미만으로 제한한다.
- 2) 조사대상 중산층 가정은 조사의 어려움으로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하였고 실내의장에 관심이 많다고 사려되는 30대와 40대의 주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전체 중산층의 일반적 성향으로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산층 거주자들의 생활양식 유형 및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 유형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하여 주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들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1) 조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주택의 물리적 환경 배경등 일반적 사항과 2) 생활양식의 여러 국면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3) 실내의장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선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응답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이해도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생활양식에 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3이었고 실내의장의 태도에 관한 문항은 신뢰도 계수가 (cronbach's α) .81로써 문항의 타당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몇 문항을 더 보완한 후 본 조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중산층의 주거지로써 인식되고 있는 강동구와 강남구에 거주하는 25평 이상 60평 미만의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각 평형별로 총 300부를 배부하여 259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86.3%) 부실기재 된 것을 제외하고 신중하게 응답한 227부를(회수된 것 중 88.4%)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SPSS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요인분석(Factor Analysis), cluster분석, F-검증, X^2 -검증으로 통계 분석하였다.

III. 조사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주택의 물리적 특성을 조

사하였다.

정생활 주기, 주부의 연령, 부부의 학력 및 직업, 월 평균 수입을 조사하였다. <표 1>

1) 사회 인구학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가족수는 4명(56.5%)가 5명(28.

조사대상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으로 가족수, 가

7%)이 전체 가구의 85.2%로써 우리나라 가족수

<표 1> 사회 인구학적 배경변인의 빈도 분포(%)

가족 수	2-3인 12(5.4)	4인 126(56.5)	5인 64(28.7)	6인이상 21(9.4)
가족주기	국민학교주기 27(15.7)	중학교주기 60(34.9)	고등학교 주기 63(56.6)	대학교 주기 22(12.8)
주부연령	30~34이하 16(7.3)	35~39 49(22.5)	40~44 117(53.7)	45이상 36(16.5)
주부학력	고졸 48(22.9)	대졸 162(77.1)		
남편직업	사무판매직 6(3.6)	중소기업주, 전문기술직 53(31.5)	대기업주, 전문직 109(64.9)	
주부직업	주부 170(81.0)	취업주부 40(19.0)		
월 소득	140만원이하 52(24.9)	150~199만원 59(26.6)	200~250만원 72(31.5)	250만원이상 31(17.0)
거주년수	1~2년 75(33.3)	3년 64(28.4)	4년 36(16.0)	5년이상 50(22.2)
소유형태	자가 190(84.4)	전세 35(15.6)		
전평크기	25~34평 100(44.5)	35~44평 45(20.1)	45~59평 54(24.1)	

평균인 4.6명과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가정생활 주기는 Biglow의 분류 중 만 자녀 연령에 따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주기로 분류한 결과 고등학교 주기가(56.6%) 가장 많이 포함되었고 중학교 주기(34.9%) 국민학교 주기(15.7%) 대학교 주기(12.8%) 순으로 확대기에 있는 가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부의 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의 학력은 남편(91.37%)과 주부(73%) 모두 대학졸업 학력이 훨씬 우세하여 중산층의 학력수준이 높음을 보여준다.

남편의 직업에서는 대부분이 대기업주 또는 전문직종사자(64.9%)이거나 중소기업주 및 전문기

술직(31.5%)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부의 경우도 취업주부(19.0%)가 많아서 중산층의 대표적 표집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월 소득 역시 중산층의 특성을 잘 대표하여서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30%)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2) 주택의 특성

주택특성으로는 현 주택의 거주년수와 주택의 소유형태, 전평 및 거실의 크기를 조사하였다. 거주년수로는 1~2년이 가장 많았으나(33.3%) 5년 이상 거주한 가구도 22.2%로 나타났으며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소유형태가(84.4%)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전평의 크기는

평균 37.8평으로 25평이상 34평이하가(44.5%)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실의 크기 역시 5~7평과 8~10평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 34.2%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 의하면 중산층의 범위를 한정하는 기준으로 1) 최저생계비의 2.5배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가져야 하며 2) 자기집이 있거나 최소한 독채 전세에 거주하여 주거생활이 안정되어야 하며 3) 일일고용이나 임시고용보다 상용고용이나 자영업주로써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4)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환완상은 우리나라 중산층은 가족수가 4.6명이며 순수 핵가족의 비율이 71%로 구성되고 맞벌이 부부들의 비율이 12%가 된다고 하였다.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대체적으로 72~84%정도가 스스로를 중산층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본 조사대상의 표집도 이러한 중산층의 특성이 잘 대표된다고 볼 수 있다.

2. 생활양식 유형분류

중산층 주부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활양식 연구문헌과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50개 항목을 5점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항목들에 대해 내적일치도 방법을 사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한 결과 신뢰도 계수는 $\alpha = 0.714$ 로 측정되어 본 연구를 위한 척도로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들 변수군에 잠재하는 몇 가지 차원의 발견과 이들 차원의 척도화를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그 요인점수를 가지고 클러스터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 인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추출방법은 직각회전 방법중 배리 맥스 접근방법

을 적용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이겐 값이 1.0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인의 수가 15개로 나타나 스크리 검정기준을 이용하여 요인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각 요인의 부하량 중 설명력이 낮은 것을 제외하고 추출된 요인들의 구성항목과 요인 부하량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인자분석후 각 요인의 특성을 따라 요인 1은 유행에 민감하며 유명회사 제품의 구입을 선호하고 외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성향으로 유행추구 성향, 요인 2는 사회적인 일에 관심이 크고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고유의 풍속이나 가족의 기념일을 지키는 등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성향이므로 지성적 주도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활동가 형으로 신체적인 운동 이외에도 사회참여의 폭이 넓은형으로 적극 활동 성향으로, 요인 4는 현재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수행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성향으로 보수 안정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중산층의 생활양식의 기저에는 현 시대의 첨단을 견고자 하는 유행추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사회의 의식을 주도해 나가는 대표적 계층으로 지성적 주도 성향, 활동면에서 신체적, 사회적 및 자기 계발적 의미에서 적극성을 띄고 있으며 자신의 현 생활을 지키고 싶어하는 보수 안정 성향등 4가지의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유행추구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중산층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며 그 이외의 특성들도 중산층 문화의 대표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요인의 성향에 대한 특성을 더욱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배경 변인중 가족수, 가족주기, 주부연령 및 주부의 학력과 각 요인과의 F-검증을 한 결과 가족수 및 주부연령에 대해 유행추구 성향과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주기에 대해서 지성적 주도 성향과 적극활동 성향에서 상관성이 나타났다. <표 2-2>

2) 환완상 외,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 1987.

〈표 2-1〉 생활양식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

요 인	구 성 항 목	요인 부하량	eigen value	분산 %	누적 %
1 유행 추구 성향	옷을 구입 할 때는 유행하는 모양과 색을 고른다.	0.561	3.48	31.8	31.8
	무슨일이든지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유행을 의식하며 생활한다.	0.656			
	몸의 작은 이상에도 몹시 민감하다.	0.412			
	물건을 살 때는 되도록이면 유명회사 제품을 구입한다.	0.543			
	상점이나 슈퍼에서 물품을 구입시 배달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0.375			
	충동구매가 종종있다.	0.515			
2 지성적 주도 경향	용모나 머리 스타일에 관심이 있다.	0.419	2.70	24.7	56.6
	매일입는 옷에 신경을 쓴다.	0.459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주시한다.	0.535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0.434			
	신문의 경제란을 관심있게 읽는다.	0.508			
	TV나 라디오의 뉴스를 즐겨 듣는다.	0.422			
3 적극 활동 성향	재산 중식을 위한 투자에 관심이 크다.	0.393	1.51	13.9	70.7
	가족들의 기념일에는 축하연과 선물을 한다.	0.501			
	명절에는 우리 고유의 풍속을 지키는 것이 좋다.	0.420			
	외출시 정장보다는 편한 옷을 즐긴다.	0.346			
	지역사회 단체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0.327			
	야외 스포츠를 즐긴다.	0.574			
4 보수 안정 성향	한가지 이상의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0.710	1.42	13.0	83.7
	내 친구나 이웃들이 가끔 내 조언을 들으러 온다.	0.364			
	지금 나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0.464			
	집안 일은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해내고 있다.	0.485			
	여성의 주된 활동장소는 가정이다.	0.392			
	돈이 없어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0.528			
집에 있을때는 친구나 이웃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	0.420				

〈표 2-2〉 배경변인과 생활양식 요인과의 F-검증

유행 추구 성향				유행 추구 성향			
가족수	빈도	평균	SD	주부연령	빈도	평균	SD
2~3인	12	3.2292	0.6026	30~34	16	3.3281	0.3705
4인	126	3.0149	0.5553	35~39	49	3.0612	0.6713
5인	64	3.0098	0.5936	40~44	117	2.9416	0.5477
6~7인	21	2.6905	0.7177	45~50	36	2.9063	0.6697
계	223	2.9944	0.5916	계	218	2.9908	0.5949
F=2.596 P<.1				F=2.508 P<.05			
지성적 주도 성향				적극 활동 성향			
가족주기	빈도	평균	SD	빈도	평균	SD	SD
국민학교	27	3.4259	0.4490	27	2.7481	0.4823	
중 학교	60	3.7528	0.6491	60	2.9300	0.6808	
고등학교	63	3.8148	0.5488	63	3.1206	0.6715	
대 학교	22	3.6136	0.5379	22	2.9818	0.6787	
계	172	3.07064	0.5826	172	2.9779	0.6378	
F=3.249 P<.05				F=2.390 P<.1			

유행추구 성향은 평균 값을 비교해 볼 때 가족수가 적을수록 유행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 < .1$)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즉 34세 이하의 주부들이 가장 유행추구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이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유행추구 성향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된다.

가족주기와 생활양식 요인과의 차이 검증결과 지성적 주도 성향은 고등학교 주기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 < .05$) 이는 부모의 연령이 대체로 40대 후반의 층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활동적으로 일하면서 사회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령 계층들이며 이들이 또한 사회적으로도 주도적인 계층들이 됨을 말해준다.

또한 적극활동 성향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주기에서 가장 적극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생활양식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클러스터 분석이 행해졌다. 이때 클러스터의 수가 문제가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Ward's minimum variance cluster analysis를 해 본 결과 6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양식 유형의 결정은 얻어진 6개의 클러스터에 그것이 갖는 생활양식의 의미를 요약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4개의 생활양식 요인변수들이 각 클러스터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클러스터 별로 각 요인의 평균을 산출해 본 결과 각 클러스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전체적 경향을 살펴볼 때 중산층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제6클러스터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클러스터에서 지성적 주도 성향이 크게 높은것을 볼 수 있으며 유행추구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고 대체적으로 적극활동 성향 및 보수안정 성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중산층이 사회의 핵심으로 안정적 역할을 담당하

<표 2-3> 클러스터별 생활양식 요인의 평균비교

생활양식 요인변수	클러스터						평균
	1	2	3	4	5	6	
유행추구 성향	2.5	3.1	2.51	2.47	3.42	2.5	2.75
지성적 주도성향	4.1	3.8	4.3	4.3	4.08	2.96	3.92
적극 활동성향	2.9	3.5	3.5	3.76	3.35	2.35	3.23
보수 안정성향	3.8	3.57	2.94	3.20	2.81	3.0	3.22

* 생활양식 유형 분류를 위해서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 하였으므로 3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성향의 높 낮이를 비교 할 수 있다.

고 있으며 중산층의 문화가 그 사회의 주류 문화가 되므로 따라서 중산층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는 이론에 맞게 본 조사 대상에서도 주도적 성향을 갖고 적극 활동적이며 보수안정 성향이 강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각 클러스터에 대한 특성과 수(手) 작업을 통해 추적해 본 응답자들의 배경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클러스터는 지성적 주도성향이 높고 보수안정적 성향이 다른 클러스터보다 가장 강한 집단이다. 또한 유행추구 성향은 낮고 적극적 활동성향도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수안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삶의 방향감각이 뚜렷하고 안정적이며 일시적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반면 활동성이 약한 집단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집단으로 해석된다. 이 집단은 전체 조사대상 가구중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고졸 학력이 많고 남편의 직업도 사무 판매직, 중소기업주, 전문기술직등이 많은데 이 집단의 명칭을 보수적 전통형이라 명한다.

제2클러스터는 각 특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집단으로 지성적이고 보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유행에도 둔감하지 않으며 적극적 활동력도 있는 집단으로 중산층의 대표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유행추구 성향이 젊은 층에서 높았으므로 <표 2-2> 신진 중산층형으로 명명한다. 전체 조사대상 중 14.5%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 수

준이 높고 남편의 직업이 보수적 전통형에 비해 대기업주, 전문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3클러스터는 지성적 주도성향과 적극적인 활동성향은 높으며 유행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반면 보수 안정적 성향은 낮은 집단으로 현실 감각이 뚜렷하고 대체로 생활의 다양한 즐거움을 즐기면서 실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현실파들로 보여진다. 35세 이후의 중년층으로 간주되며 점진적 중산층형으로 명한다. 비율은 전 조사대상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제4클러스터는 역시 지성적 주도성향은 높고 적극활동 성향이나 보수 안정을 취하려는 성향도 비교적 높으나 유행추구 성향은 가장 낮은 집단으로 40대 초반의 주부들의 생활양식 태도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 집단은 전체 조사대상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알뜰 살림형이라고 명명한다.

제5클러스터는 제4클러스터와는 반대되는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보수 안정을 취하기 보다는 지성적 주도형이면서 유행을 추구하는 성향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강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집단이다. 중산층의 생활양식 유형 중에서 가장 혁신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개방적 적극형으로 명명될 수 있다. 이 집단은 조사대상 중 11.5%를 차지하고 있다.

제6클러스터는 전체 클러스터중 여러 성향에서 가장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으로 유행 추구, 지성적 주도, 적극적 활동성향이 모두 낮으며 오히려 보수 안정성향만이 상대적으로 다른 성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생활의 제 국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기준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는 소극적 침체형으로 명명될 수 있으며 전체 조사대상 중 11.5%를 차지하고 있다.

이차옥은(1983) 마아케팅 전략을 위해 도시 주부 전반의 생활양식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 소극 침체형(26.8%), 자기개발형(11.

9%), 경제 추구형(20.9%), 유행추구형(15.7%), 보수 알뜰형(14.8%), 여유 안정형(9.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소극 침체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그 구성원들이 주로 중학교 이하의 학력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형은 고졸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갖춘 취업 주부들이며 30대 이하로 본 연구 결과의 개방적 적극형과 대비될 수 있으며 유행 추구형은 주로 30대 전반에 높은 교육수준 등 본 연구 결과의 신진 중산층형과 대비될 수 있겠다. 전반적인 프로파일에서 전 계층의 생활양식 유형에 비하여 중산층의 생활양식 유형이 사회 의식이나 자신의 의견이 뚜렷한 주도세력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중산층에 대한 6개의 생활양식 유형이 결정되었으며 각각 해당되는 집단의 명칭과 분포도를 <표 2-4>에 요약 정리 하였다.

<표 2-4> 6종류의 생활양식 유형과 빈도 분포

클러스터	생활양식 유형	빈도 (%)
1	보수적 전통형	30(13.2)
2	신진 중산층형	33(14.5)
3	점진적 중산층형	53(23.3)
4	알뜰 살림형	59(26.0)
5	개방적 적극형	26(11.5)
6	소극 침체형	26(11.5)
계(명)		227(100.0)

각 클러스터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파악하기 위하여 각 클러스터와 배경변인 간의 관련성을 X^2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단지 주부의 학력에 대해서만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표 2-5> 고졸 학력의 주부는 클러스터 1의 보수적 전통형과 신진 중산층형 및 소극 침체형에서 기대빈도 보다 관찰빈도가 높으며 고졸 주부들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보수적 전통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약 30%) 대졸 주부는 점진적 중산층형과 알뜰 살림형에 과반수 이상이 분포

되고 있다. 따라서 고졸주부의 경우 보수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대졸 주부의 경우는 생

활양식 유형이 고졸 주부보다 좀더 적극적, 주도적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5〉 각 생활양식유형별 주부 학력과의 관계

빈도(기대빈도) 백분율 row % col %	생활양식 유형						계
	보수적 전통형	신진 중산층형	점진적 중산층형	알뜰 살림형	개방적 적극형	소극 침체형	
고 졸	14(6.1)	9(7.3)	5(10.5)	9(13.3)	5(5.9)	6(4.8)	48
	6.67	4.29	2.38	4.29	2.38	2.86	22.86
	29.17	18.75	10.42	18.75	10.42	12.50	100.00
	51.85	28.13	10.87	15.52	19.23	28.57	
대 졸	13(20.3)	23(24.7)	41(35.5)	49(44.7)	21(20.1)	15(16.2)	162
	6.19	10.95	19.52	23.33	10.00	7.14	77.1
	8.02	14.20	25.31	30.25	12.96	9.26	100.00
	48.52	71.88	89.13	84.48	80.77	71.43	
계	27	32	46	58	26	21	210
	12.86	15.24	21.90	27.62	12.38	10.00	100

$\chi^2=19.481$ $P<.01$

3. 실내의장의 태도 유형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자가 도구를 작성하고 예비조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한 후 42개 문항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문항간의 신뢰도는 $\alpha = 0.87$ 로써 태도 측정을 위한 척도로 타당하다고 간주되었다.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유형을 분류하기에 앞서 중산층의 실내의장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실내의장 태도 측정을 위한 문항중 실내의장의 관심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5점 척도로 측정한 조사대상자의 총 점수는 50점 만점중 점수범위가 20점~47점으로 평균 35.1점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내의장의 태도분류를 위해 측정된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표 3-1>

각 요인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생활공간에서 자신들의 생활사를 엮을 수 있도록 노력하

는 정서적인 형으로 자신이 손수 실내장식용품을 제작 또는 수집하거나 개조하여 쓰고 싶어하는 등 스스로의 능력을 통하여 실내를 꾸미려는 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정서적 자수(自手)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실내를 꾸미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적인 감각도 풍부하고 집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개성적 감성 성향이다. 요인 3은 공간을 장식하기를 즐겨하며 제대로 격식을 갖춘 모양새 있는 거실을 원하고 특히 남용 의식하는 경쟁심리도 많이 엿보인다. 실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경제적 희생도 허용하는 형으로서 격식적 현대성향이라 칭할 수 있다. 요인 4는 전통적 주부의 삶을 보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나 보이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이 생활의 잔잔한 멋을 즐기려는 형으로 보수적 절제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생활양식의 유형 분류에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클러스터 분석을 하였으며 각 클러스터별로 각

〈표 3-1〉 실내의장 태도에 관한 요인 분석

요 인	구 성 항 목	요인 부하량	eigen value	분산 %	누적 %
1 정서적, 자수 성향 $\alpha=0.75$	좋은 가구라면 후손에게 대 물림을 하고 싶다.	0.394	5.608	41.3	41.3
	식물을 기르거나 여행시 그 지방의 특산물들 가져다가 실내의 분위기에 자연미감을 나타내고 싶다.	0.615			
	내가 만든 수, 공예품등 작품을 실내에 장식하고 싶다.	0.600			
	방안의 가구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0.333			
	우리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어울리는 거실을 꾸미고 싶다.	0.357			
	필요한 물건을 새로 사기 보다 가능한 한 개조를 하거나 보수해서 쓴다.	0.375			
	거실에 현재 장식되어 있는 가구나 기물들은 자신이 애착을 갖고 모든 것들이다.	0.506			
	실내에서도 계절감을 느끼도록 그 계절의 꽃이나 갈대등으로 분위기를 내려한다.	0.527			
거실에는 자신이나 가족들의 추억이 깃든 물품이 있다.	0.306				
2 개성적, 감성 경향 $\alpha=0.70$	각 실마다 실내가 잘 조화되어 있다.	0.387	1.202	15.8	57.1
	개성적이고 독특한 거실을 좋아한다.	0.514			
	나의 집에서 특히 애착을 느끼는 장소가 있다.	0.381			
	우리집에서는 사생활의 보장이 잘 되고 있다.	0.364			
	우리집의 환경은 매우 위생적이다.	0.413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하여 쉽게 나의 기호를 바꾸지 않는다.	0.572			
	색이나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좋다.	0.408			
	조각이나 그림등 미술 감상하는 것이 좋다.	0.459			
실내장식의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더라도 내가 좋으면 할 수 있다.	0.411				
3 현대적, 격식 성향 $\alpha=0.67$	주책이란 우리집의 생활양식을 잘 바꿔주어야 한다.	0.527	1.051	9.7	66.8
	아주 현대적인 가구나 장식을 좋아한다.	0.411			
	거실에 기념품이나 장식품을 많이 전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0.479			
	집의 실내장식은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이 좋다.	0.540			
	예쁜 실내장식품을 다른 집에서 보면 똑같은 것을 사다놓고 싶다.	0.446			
	각 방에 다양한 장식물들로 장식하기를 좋아한다.	0.474			
	방안에 물건들이 고가품으로 격식을 갖추어 있는 것이 좋다.	0.416			
	나의 취향과 다소 어긋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가구를 선택한다.	0.549			
4 보수적, 절제 성향 $\alpha=0.55$	실내 공간이 넓고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좋다.	0.433	1.013	7.3	74.1
	가구 구입시에는 디자인보다 우리집의 크기나 생활을 잘 고려하여 산다.	0.730			
	항상 집안 구석 구석이 깨끗해야만 마음이 편하다.	0.430			
	가사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편이다.	0.376			
	실내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요인에 대한 평균점을 산출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클러스터별 실내의장 태도 요인의 평균비교

실내의장 태도 유형	클러스터						평균
	1	2	3	4	5	6	
정서적, 자수 성향	3.9	3.72	2.58	3.05	4.23	3.40	3.48
개성적, 감성 성향	3.7	3.9	3.75	3.51	4.23	3.37	3.74
격식적, 현대 성향	2.2	3.06	1.77	2.76	3.08	2.5	2.56
보수적, 절제 성향	4.0	3.9	3.66	3.36	4.31	3.81	3.84

각 클러스터별 실내의장 태도 요인을 살펴보면 5점 척도로 조사된 항목중 3점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각각의 성향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성향을 보이는 집단과 2점 이하의 낮은 성향을 보이는 집단을 볼 수 있다. 각 성향별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중산층의 실내의장의 태도에서 계획적 보수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지에서 구한 기념물이나 손수 만든 것으로 실내를 꾸미고자 하는 정서적 자수 성향이나 개성적인 실내를 꾸미고자 하는 개성적 감성 성향도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나 남을 의식하여 과시적으로 꾸미려는 격식적 현대 성향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요즈음의 사회 문제로 회자 되고 있는 과소비의 풍조와 달리 우리의 중산층의 의식이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클러스터는 자신이 실내용품을 손수 만들고 가족들의 생활을 실내에 표현하려는 욕구도 크고 또한 개성적이며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나 남을 의식한 공간의 장식은 기피하려는 경향으로 알뜰 정서형으로 명한다. 전 조사대상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제2클러스터는 모든 성향이 다 평균점을 상회하여 고르게 모든 성향을 다 갖추고 있는 현대적 감각형으로 16.5%가 구성되어 있다.

제3클러스터는 전 조사대상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실내용품을 제작하여 집안을 꾸미려는 정서적 자수성향 의도는 다소 낮으나 실내가 개성적이고 아늑하고 안정된 것을 좋아하는 형

으로 격식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는 전체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낮아서 실질적 중산층형으로 명한다.

제4클러스터는 실내의장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각 성향이 평균보다 낮으나 상호간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고르게 갖추고 있으며 격식적 성향은 낮은 가장 온건한 온건중용형으로 전 조사대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25.9%를 차지하고 있다.

제5클러스터는 조사대상 중산층의 11.4%를 차지하며 실내장식에 아주 관심이 높고 능력도 있는 멋쟁이로 또한 남을 의식하여 실내를 꾸미는데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형이다. 제2클러스터의 신진 중산층형과 각 성향에서 유사한 흐름을 보이거나 보수적 절제 성향이 가장 높아서 절도있는 생활태도를 보이며 모든 클러스터 중에서 각 성향들이 가장 높게 나타난 형으로 적극능동형으로 명명한다.

제6클러스터는 모든 성향이 평균보다 낮으며 알뜰하게 손수 만들거나 꾸미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는 태도도 낮은 형으로 미적감각은 있으나 조용히 조출하게 생활하는 형으로 소극 참여형으로 명명했다. 전 조사대상중 10.1%를 차지한다.

이상으로 중산층의 실내의장에 대한 6개의 태도 유형이 규명되었다. <표 3-3>

<표 3-3> 실내의장 태도 유형의 분류 및 분표

(총 227명)			
클러스터	실내의장 태도 유형	빈도	백분율(%)
1	알뜰 정서형	31	13.7
2	현대적 감각형	37	16.5
3	실질적 안정형	51	22.4
4	온건 중용형	59	25.9
5	적극 능동형	26	11.4
6	소극 참여형	23	10.1

4. 생활양식의 유형과 실내의장 태도 유형과의 상관성

생활양식의 유형과 실내의장 태도 유형과는 얼

하나 상호연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생활양식의

유형 전체와 실내의장 태도 유형 전체의 상관성은 $r=.4769$ 로 나타났다. <표 4-1>

<표 4-1> 생활양식 유형과 실내의장 태도 유형과의 상관성

		생활양식유형						
		보수적 전통형	신진 중산층형	점진적 중산층형	알뜰 살림형	개방적 적극형	소극 침체형	총합
실 내 의 장 태 도 유 형	알뜰 정서형	0.3571*						
	현대적 감각형	0.1315*	0.2943*					
	실질적 안정형	0.1022*	-0.1230	0.2654**				
	온건 중용형	0.3117*	0.1985	0.1453	0.1351**			
	적극 능동형	0.0385	0.1562*	0.1359	0.1002	0.2465**		
	소극 참여형	0.2945*	0.1444	0.2105*	0.3204	-0.1240	0.3439**	
	총합	0.3258*	0.2394*	0.3415	0.0385	0.2717	0.0707	0.4769**

* $P < .05$ ** $P < .01$

$r=.5(r^2=.25)$ 일때 두 사이 관계를 25%정도 설명할 수 있으므로 생활양식으로 실내의장 태도의 예측정도는 $r=.48$ 로서 약 25%정도 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각 클러스터별 비교를 볼 때 그 관계의 정도는 미약하나 각기 유의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생활양식유형과 실내장식 태도 유형은 뚜렷한 별개의 독립적 관계이기보다 상호 연관되어 서로를 포괄하고 있는 관계로써 설명될 수 있다.

생활양식은 개인의 가치관, 의견, 태도, 흥미등을 통하여 생활방식에 대한 기본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써 모든 삶의 국면에 영향을 주게되며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 역시 생활양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일반 생활양식에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 요인들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실재를 파악하고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대체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러나 그 일에 대하여 주견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생소한 일이라면 그의 일반 가치관에 입각한 생활양식으로 그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같이 중산층의 대다수의 주부들이 실내의장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적 여건이 실내의장에 관한 분야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에서 미학적인 관심을 갖게 된 역사도 짧으며 주변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기간도 오래지 않아서 하나의 뚜렷한 개성으로 형성되기에는 미진하다고 보겠다. 또한 사회 저변에 깔린 남과 같아지고자 하는 동조성의 욕구로 인하여 상향 계층의 취향을 본 받고자 하는 성향과 실내의장용품에 대한 뚜렷한 생산체계를 갖출 만큼 우리의 장식역사가 길지 못하여 구할 수 있는 실내용품의 범위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 등으로 실내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기에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관성이 낮은 것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통해서 하나의 현상을 유추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일반적인 결과일지도 모르며 한편으로는 실내의장에 대한 경험의 폭이 넓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앞으로 좀 더 실내의장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의 형성이 되면 그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사려된다.

생활양식 유형의 각 클러스터와 실내의장 태도 유형의 각 클러스터별로 각기 대응되는 클러스터 간의 관계를 <표 4-2>에 정리하였다.

<표 4-2> 생활양식 유형과 실내의장 태도 유형의 대응관계

생활양식 유형	실내의장 태도 유형
1 보수적 전통형	→ 알뜰 정서형
2 신진 중산층형	→ 현대적 감각형
3 점진적 중산층형	→ 실질적 안정형
4 알뜰 살림형	→ 온건 중용형
5 개방적 적극형	→ 적극 능동형
6 소극 침체형	→ 소극 참여형

생활양식 유형을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표 4-3> 생활양식 유형과 실내의장 태도 유형의 성향 비교

생활양식 유형	보수적전통형	신진중산층형	점진적중산층형	알뜰살림형	개방적적극형	소극침체형
실내의장 태도	알뜰정서형	현대적감성형	실질적안정형	온건중용형	적극능동형	소극참여형
유행추구 성향	2.5	3.1	2.51	2.47	3.42	2.5
정서적 자수 성향	3.9	3.72	2.58	3.05	4.23	3.40
지성적 주도성향	4.1	3.8	4.3	4.3	4.08	2.96
개성적 감성성향	3.7	3.9	3.75	3.51	4.23	3.37
적극활동 성향	2.9	3.5	3.5	3.76	3.35	2.35
격식적 현대성향	2.2	3.06	1.77	2.76	3.08	2.5
보수 안정성향	3.8	3.57	2.94	3.20	2.81	3.0
보수적 절제성향	4.0	3.9	3.66	3.36	4.31	3.81

* 위의 표는 <표 2-3>과 <표 3-2>의 종합으로 각 구획에서 / 위에 있는 수치나 용어는 생활양식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 밑에 있는 용어 및 수치는 실내의장 태도에 관한 사항이다.

1) 보수적 전통형(알뜰 정서형)

일상 생활양식에서 지성적 주도 성향이 높고 안정 성향이 높으며 유행을 추구하지 않고 적극활동성도 낮은 소극적인 형이다. 실내의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실내에 자연재료로 장식하거나 실내용품을 손수 만들기도 한다. 개성적인 실내를 선호하고 미에 대한 의식도 발달되어 있으며 주택의

의미등도 잘 파악하고 있는 유형이다. 실내의장 태도에서는 격식적 현대 성향이 낮아서 과시욕, 경쟁심리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집안의 실내꾸미기(정서적, 자수 성향)와 개성적인 거실을 좋아하나(개성적 감성 성향) 전반적 생활태도가 소극적이며 고졸 주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으로 내면적이고 조용한 생활양식 유형이다.

2) 신진 중산층형(현대적 감각형)

지성적이고 보수 안정적이나 유행추구 성향도 있고 정서적으로 집안을 꾸미는데 관심도도 높다. 또한 적극활동성향, 격식적 현대성향도 다른 유형에 비해 뒤지지 않는 적극형으로 대체로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로 볼 수 있다.

3) 점진적 중산층형(실질적 안정형)

유행추구나 정서적 자수 성향등은 모두 낮고 격식적 현대 성향은 가장 낮아서 당시의 유행을 쫓거나 남을 의식한 과시 욕구등에 관심이 없다. 현실 감각이 뚜렷하고 자신의 분명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생활양식상의 보수안정 성향의 점수가 낮은 것은(2.95) 자신의 현 생활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 좀 더 활동적인 생활을 더 원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현실성이 높고 실속파형으로 35세 전후의 초기 중년층들이다.

4) 알뜰 살림형(온건 중용형)

지성적 주도 성향은 높고 보수 안정적이며, 격식적 현대감각의 과시욕은 낮으며 적극적 활동형이다. 그러나 정서적 자수 성향의 손수 집안 꾸미기에는 별로 관심이 높지 않고 그렇다고 유행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40대 초반의 주부들의 생활양식 태도로 간주할 수 있겠다.

5) 개방적 적극형(적극 능동형)

모든 성향에서 능동적인 신진 중산층형과 유사한 생활양식 태도 그러나 신진 중산층 보다 더 적극적인 성향이다. 모든 점수가 신진 중산층보다 높고 더구나 집안에 그냥 있는 것은 싫어하므로 생활양식상의 보수안정 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진 중산층형보다 더 젊은 세대로 추정된다.

6) 소극 침체형(소극 참여형)

생활 일반에서 안정적으로 집안에서의 생활을 즐기며 다른 태도 성향에서는 가장 낮은 소극적인 유형이다. 실내외장 태도에서는 집안의 실내꾸미기(정서적, 자수 성향)나 미술감상등을 즐기며, 개성적인 거실을 좋아하나 격식적인 과시욕은 가

장 낮은 유형으로써 자신의 기호를 고수하면서 내면적이고 조용한 생활을 하는 유형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의 연구분석과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1) 중산층의 생활양식 유형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유행추구 성향, 지성적 주도 성향, 적극활동 성향, 보수안정 성향의 4가지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양식의 유형은 그 분포의 순위대로 알뜰살림형(26.0%), 점진적 중산층형(23.3%), 신진 중산층형(14.5%), 보수적 전통형(13.2%), 개방적 적극형(11.5%)과 소극침체형(11.5%)으로 분류되었다. 중산층이란 사회의 안정세력으로써 그들의 가치 및 문화가 그 사회의 주류 문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중산층의 전반적 생활양식은 건전하며 사회현상이나 신변의 일에 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고 생활상의 안정과 균형을 잡고 있으면서도 진취적인 성향이 높다고 간주된다.

2) 실내외장에 대한 태도요인으로 정서적 자수 성향, 개성적 감성 성향, 격식적 현대 성향, 보수적 절제 성향의 4개 요인들이 밝혀졌고 이들의 혼합정도에 따라 중산층의 실내외장 태도의 유형으로는 온건 중용형(25.9%), 실질적 안정형(22.4%), 현대적 감각형(16.5%), 알뜰 정서형(13.7%), 적극 능동형(11.4%), 소극 참여형(10.1%)으로 분류되었다. 실내외장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생활양식과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특성은 아니나, 실내에 대한 태도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실내외장에 대한 중산층의 태도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실내 디자인에 관한 교육이나 제품개발등에 지침이 될 수 있다.

3) 생활양식 유형과 실내외장 태도 유형의 관계는 물론 실내외장 태도 역시 생활양식의 일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하나 둘사이의 관계는 상호간에 25%정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실내외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이 더욱 확고해지면 상호

간의 예측의 정도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실내의장에 대한 실 수요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하나의 시도로서 지금까지는 실내의장에 대한 태도와 관심도에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는 층이 그렇게 두껍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위의 결과를 통해 좀더 실내 의장용품의 실수요자들인 중산층의 실내의장 태도에 대한 분명한 윤곽을 잡고 그들의 실제 의장 특성과의 비교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들의 기호와 의장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전체 디자인의 발전상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실내의장용품의 개발 방향 설정에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경동, "직업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계급구분",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2. 김경미, "현대 Interior Design의 특징 및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5.
3. 김혜연,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의 분석" - 서울지역 아파트 거주 주부중심으로 하여 -,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4. 송명혜, "도심지 APT 주부들의 실내디자인에 관한 실증적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5. 오연주, "도시 주부의 라이프 스타일과 저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0.
6. 이차옥, "우리나라 도시거주 가정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7. 홍두승·김미희, "도시 중산층의 생활양식" -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 성곡논총 제9집, 1988.
8. Alessandro Mendini, "Every object different from every other object - 2001년의 space design", *Space design* 1984. 5.
9. Carol M. Werner, "Home Interiors, A Time and Place fo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62, No. 5, May.
10. Cooper, Clare, "The House as Symbol of the Self" *Designing for Human Behaviors* Dowden, Hutchinson & Ross Inc. 1977.
11. David b. Van Dommelen, "The Interior Designer and the Environmental Designe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2, No. 5, May 1970.
12. Milo Baughman, "Don't under estimate the influence of Design", *J. Home Economics* April 1972.
13. Roderich J. Lawrence, "What makes a House a Home?" *Environment and Behavior* Vol. 19, No. 2, March 1987.